

2016년 12월 7일,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, 김선희 조사.
오윤생(여, 1932년생, 남원읍 태흥3리)

[조사자] 도깨비 얘기도 해 줍서.

[제보자] 그순대엔 헌 건이. 요 들 엇곡 비나 축축 오고 오월 장마 곁은 때 있잖아 그런 때가 구신은 잘 나. 장마정으네 비 축축축 오고 안개 질 때. 경현 때인디. 옛날은 우리가 메역을 허난, 갯것디 메역을 허난 바당 쎌면 그것을 올려. 올리난 메역을 바당 쎌민 물 싸민 그걸 허레 밤이 오는 거라이. 물 싸민 줍젠. 저 중앙에서 이 바당에 오난. 아이 두 개 들곡 헤영 이딜 오난. 오단 보난 이디 소곰막이 엔 헌 디 잇어. 요기.

[조사자] 소곰막마씸?

[제보자] 소곰막이엔 헌 디 요디. 절로 왓이민 요기 동떨어진 디 실 건디. 집 엇인 디. 저 쪽 마을하고 우리 삼리허고 사이에 이디 바당.

[조사자] 해안도로 들어오는 디마씸?

[제보자] 으. 바당. 그쪽에가 옛날 소곰 구워나난 디라.

[조사자] 아하.

[제보자] 옛날 소곰. 옛날 할망들, 하르방들 그디서 소곰 구웠인디 이젠 다 그디 메완 저 펜드레 보난 집들 짓엉으네 올리부터는 미깡 판매했언게. 그디서. 게난 그디가 제일 무서운 디라이. 이거 메와 부난 했주. 메우지 아니한 때는 그디가 높아. 저 레도 높고. 이레도 높으민 이디가 막 누차옵주게.

겨난 이제 마는 팡팡팡 하는 디 글로 오노렌 허난 일로 그자 크등한 것이 숙박 사난 악악헌 거주. 악악허고 융이 오는 아이들은 안 보이난 몰른 거고. 겨난 오단 보난 크등하게 뭐가 삿이난에 옛날에 훠엔 헌 거 잇어. 이영 검질로 헤영 길게 묶은 거 잇저. 혼 밧 썩은 헤영 묶은 거. 그런 것에 빙빙 묶엉으네 성낭 아지고 헤연 이디 오란 불 싸가지고 헤연 메역 빠지믄 줍젠. 오노렌 허난 뭐가 그자 앞이 악악 숙박 산 거라이. 아이들은 기자 몰르고. 게난 아이들?라

“야, 그디 훠 이디 앗아내라.”
그것이 훠라이. 영 묶은 것이. 게난
“그 훠불 싸라.” 영 허난에
“미시거 허쿠과. 미시거 허쿠과?”
“니네 몰른다게. 몰르건 나 곤는 더레 들으라. 훠불만 싸라.”
허난. 불 척허게시리 성낭불 싸난 불 착 붙으멍 확 들르난 ‘에헴’ 허멍 할망
음성이 막 큰 할망
“에헴 어드레.”
허난 그게 확 사라져 분 거라이.

[조사자] 아, 예.

[제보자] 게난 아이들은 몰르난.

“삼춘 거 뭐? 삼춘 뭐허멘. 뭐허멘?”
“야, 몰라도 좋다게.”
경 허멍 헤연. 그것이. 그슨대가 그런 건 몰랑 그 사람 강알로 넘어가 불민 그
사람 죽낸 헤여. 사람이 죽는 거. 경 허난 그 사람 그 할망 요디 살았어. 살양
어령 헹 뎅기단 사고로 빼가 막 그차져 부난 정신은 구짝허여도 양로원에도 못
가고 그자 뜰네집이 살멍 사람 둘양 똥 오줌 치우곡 허멍 사는 할망인디.

- 핵심어 : 그슨대, 오월 장마, 구신 잘 나는 날씨, 소곰막, 마, 왁왁, 크등한 거, 훠불, 강알